



블랑팡 그랑 더블 소네리

REF. 15GSQ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블랑팡,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의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랑 더블 소네리 (GRANDE DOUBLE SONNERIE)’ 공개

블랑팡 회장 겸 CEO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는 메종의 장인정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그랑 소네리(Grande Sonnerie) 개발을 주도했다. 그는 단순히 이 희귀한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한 몇몇 브랜드의 대열에 합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블랑팡만의 방식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설적인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를 부활시킨 그의 다이빙에 대한 열정이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정교한 메커니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전례 없는 시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시각을 알리는 소리는 두 개의 음으로 구성되지만, 그는 블랑팡 워치 메이커들에게 네 개의 음으로 울리는 그랑 소네리를 구상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기술적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가 아닌, 하나의 ‘멜로디’로 시간을 표현하는 예술적 차임을 꿈꾸었다. “시간을 두 가지 멜로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그의 구상은, 클래식한 웨스트민스터 차임(Westminster Chime)과 록 밴드 KISS의 드러머이자 워치 컬렉터인 ‘에릭 싱어(Eric Singer)’가 직접 작곡한 오리지널 멜로디를 버튼 하나로 선택하고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이 아이디어는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워치메이킹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했다. 새로운 블랑팡 ‘그랑 더블 소네리’는 두 가지 멜로디의 ‘그랑 소네리(Grande sonnerie)’, ‘쁘띠 소네리(Petite sonnerie)’, ‘미닛 리피터(Minute repeater)’ 기능에 더해, ‘플라잉 투르비옹(Flying Tourbillon)’과 ‘레트로 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Retrograde Perpetual Calendar)’를 결합하며,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의 세계에 진정한 혁신을 선사한다.



기술 하이라이트 (Key-takeaways)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형 그랑 소네리(WORLD PREMIERE)

블랑팡은 케이스 측면의 푸셔를 통해 두 가지 멜로디를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형 그랑 소네리를 선보인다. 클래식한 '웨스트민스터 차임'과 뮤지션 '에릭 싱어'가 작곡한 오리지널 블랑팡 멜로디 중 원하는 멜로디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목시계형 그랑 소네리 중에서도 절대적 희소성을 지닌 작품으로, 매 정시마다 네 개의 쿼터를 연주해 한층 확장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RETROGRADE PERPETUAL CALENDAR)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는 무브먼트에 완전히 통합된 구조로 구현되었다. 블랑팡의 특허 기술인 언더 러그 코렉터(Under-lug Corrector)가 장착되어 별도의 도구 없이 손끝만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플라잉 투르비옹(FLYING TOURBILLON)

1989년 블랑팡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상징적인 '플라잉 투르비옹'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다.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4Hz의 진동수를 갖추어 정밀성과 내구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블랑팡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계(THE MOST COMPLICATED WATCH IN BLANCPAIN'S HISTORY)

이번 제품은 블랑팡 역사상 가장 복잡한 타임피스로, 8년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되었다. 총 1,200장의 기술 도면과 21개의 특허(그중 13개는 무브먼트에 직접 통합), 그리고 1,053개의 개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시계의 부품 수는 1,116개에 달한다. 모든 설계·조립·장식 과정이 블랑팡의 매뉴팩처 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었다.

탁월한 사운드(EXCEPTIONAL SOUND)

네 개의 음(E, G, F, B)은 네 개의 독립된 해머에 의해 연주된다. 베젤에 통합된 '음향 멤브레인(Acoustic membrane)'이 사운드 전달을 향상시켜 단순한 음량을 넘어선 놀라운 품질을 구현하며, '사일런트 자기식 레귤레이터(Silent magnetic regulator)'가 일정하고 정숙한 리듬을 유지한다.

전통적인 수공 마감(TRADITIONAL ARTISANAL FINISHING)

26개의 브리지와 메인 플레이트는 18K 골드로 제작되었으며, 전통적인 수공 마감 기법으로 완성된다. 앵글라주 (Anglage, 135개의 인워드 앵글 포함), 페를라주(Perlage), 미러 폴리싱(Mirror polishing), 다이아몬드 밀링(Diamond milling), 스트레이트 그레이닝(Straight graining) 등 모든 마감 공정은 르 브라쉬(Le Brassus)에 위치한 블랑팡 피니싱 공방에서 장인의 손끝으로 세심하게 수행된다. 각 부품은 외부에서 보이는 면뿐 아니라 내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안전 보호 메커니즘(SAFETY MECHANISMS)

무브먼트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안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이 정교한 설계는 시계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작동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

착용을 위한 디자인(A WATCH DESIGNED TO BE WORN)

무브먼트의 극도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는 모든 테스트와 인증을 통과해 높은 착용감을 유지한다. 직경 47mm, 두께 14.5mm, 러그 간 길이는 54.6mm로 손목 위에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제공한다.

특별한 워치 케이스(SPECIAL PRESENTATION BOX)

이 시계는 스위스 발레 드 주(Vallee de Joux)의 전설적인 리수(Risoud) 숲에서 채취한 스프러스 목재(Resonance spruces)로 제작된 케이스에 담긴다. 오랜 세월 루티에(Luthier)들이 탁월한 음향 특성으로 높이 평가해 온 이 목재의 전통을 이어가며, 이 케이스는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박스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시계의 차임을 증폭시키는 사운드보드(Soundboard) 역할을 하며, 타임피스를 이 지역의 문화적·장인적 유산과 연결한다.

맞춤 제작(ULTIMATE PERSONALIZATION)

각 타임피스는 오너의 취향과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단 한 점만을 위한 절대적 익스클루시비티가 보장된다.

블랑팡의 헤리티지 (Blancpain's Heritage)

두 세기에 걸쳐 한 가문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블랑팡은 지금도 전통 위치메이킹의 정신에 대한 변함 없는 혁신으로 그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스위스 발레 드 주, 파인 위치메이킹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공방에서 블랑팡은 무브먼트의 설계부터 부품 생산, 조립, 마감까지 전 과정을 100% 자체 제작한다. 문페이즈 컴플리트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 뚜르비옹, 까루셀, 크로노그래프, GMT, 미닛 리피터 그리고 이번 그랑 소네리에 이르기까지 위치메이킹의 주요 컴플리케이션이 모두 블랑팡의 컬렉션에 구현되어 있다. 또한 블랑팡은 스틸,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세라믹 케이스를 직접 제작하는 몇 안 되는 매뉴팩처 중 하나다.

블랑팡의 역사에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은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전설적인 모델 1735는 그 시대 가장 복잡한 자동 와인딩 손목시계로 기록된다. 이 작품은 미닛 리피터,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 그리고 뚜르비옹을 결합해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했다.

8년 전, 블랑팡의 회장 겸 CEO '마크 A. 하이예크'는 새로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사운드 위치의 궁극적 형태는 더 이상 미닛 리피터가 아닌 그랑 소네리였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그랑 소네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크 A. 하이예크는 시계의 예술을 한 단계 더 확장하고자 했다. 시간을 단순히 울리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로 표현하는 시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의 비전 아래 블랑팡은 소리로 시간을 전하는 기술을 예술적 울림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랑 소네리는 위치메이킹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자, 모든 컴플리케이션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저는 오너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랑 소네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는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계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 멜로디가 진정한 음악성을 지니고, 무엇보다 시간을 울릴 때 미소를 짓게 하는 시계, 그 울림이 진심 어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계 말입니다. 정교한 그랑 소네리 메커니즘이 드러난 오픈 구조 속에서, 네 개의 해머가 멜로디를 울리고, 13개의 특허가 담긴 골드 무브먼트가 화려하게 빛을 발하며, 최상의 마감이 더해진 이 시계가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알리는 소리(The Sounding of Time)

오늘날 우리는 시계의 차임 기능을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즉 정교한 기술과 예술성이 결합된 장치로 인식한다. 시간을 소리로 전하는 기능은 시계의 품격과 희소성을 상징하며,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장 매혹적인 표현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기원은 훨씬 실용적이었다.

14세기, 수도원과 마을의 대형 시계들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보다 '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 차임은 공동체의 일상과 노동의 리듬을 조율하는 기준이 되었고, 사람들은 시곗바늘보다 종소리를 통해 하루의 흐름을 인식했다. 이처럼 시간의 울림으로 삶의 질서를 세웠던 전통이 바로 그랑 소네리의 뿌리다. 블랑팡 그랑 더블 소네리에 사용된 두 가지 멜로디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차임은 1793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세인트 메리 교회(St. Mary's the Great)에서 시작되었다. 이 멜로디가 런던의 빅벤(Big Ben)에 채택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랑 소네리 & 뽀띠 소네리(Grande Sonnerie & Petite Sonnerie)

1992년 이전까지 손목시계형 그랑 소네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절 '시간을 울리는 시계'는 오직 미닛 리피터 형태로만 제작되었으며, 이는 슬라이드를 당겨 작동시키는 온-디맨드(요청형)차임 기능이 었다. 대부분의 미닛 리피터는 슬라이드를 당겨 에너지를 충전한 후, 고음과 저음 두 가지 음색의 조합으로 시간을 울렸다. 반면 그랑 소네리와 뽀띠 소네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을 울리는 구조다. 그랑 소네리는 정시에 시간을 울리고, 매 쿼터(15분)마다 시각과 분기를 함께 울리는 구조로 정의된다. 뽀띠 소네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형은 매 정시에만 울리고, 쿼터는 울리지 않는다. 더 복잡한 형태는 매 정시에는 시간을, 각 쿼터에는 분기만을 울리며 시각은 반복하지 않는다. 이 두 소네리 모두 무브먼트 내부의 배열에 의해 구동되며, 오너가 직접 슬라이드를 당기거나 별도의 작동을 할 필요가 없다. 블랑팡의 그랑 더블 소네리는 두 개의 독립적인 배열을 탑재해, 하나는 시계의 기본 작동을, 다른 하나는 그랑 소네리, 뽀띠 소네리, 그리고 슬라이드 작동 없이 구동되는 미닛 리피터를 담당한다.



멜로디로 울리는 시간(Sounding of Time with a Melody)

초기의 손목시계형 그랑 소네리는 대부분 미닛 리피터와 동일한 '2음 구조'를 따랐다. 낮은 음으로 시각을, 높은 음으로 분을, 그리고 두 음의 조합으로 쿼터(15분)을 울리는 방식이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그랑 소네리가 이 공식을 따른다. 그러나 블랑팡의 비전은 그 너머에 있었다. 그랑 더블 소네리는 단순한 차임을 넘어, 진정한 '멜로디'를 구현한다는 마크.A.하이예크의 발상에서 탄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블랑팡은 기존의 두 음 대신 네 개의 음(E, G, F, B)을 사용했다. 이는 각각의 음을 담당하는 네 개의 해머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무브먼트의 복잡성이 두 배로 증가하는 과감한 시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소리'를 '멜로디'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했다. 두 음 구조에서는 각 음의 주파수나 음정의 관계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지만, 멜로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음이 완벽히 조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블랑팡의 워치메이커들은 레이저를 활용해 진동의 주파수를 정밀 측정하고, 네 개의 음이 완벽히 조율되도록 세밀한 튜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마치 콘서트의 시작을 앞두고 오보에의 'A'음에 맞춰 오케스트라 전체가 음정을 조율하는 순간과 같다.

멜로디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는 완벽한 템포다. 인간의 귀는 멜로디를 들을 때 0.1초의 미세한 불규칙도 감지할 만큼 예민하다. 그랑 더블 소네리 역시 미닛 리피터처럼, 차임의 속도를 제어하는 레귤레이터(Regulator)를 탑재하고 있다. 블랑팡은 이 부분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더했다. 이 시계에는 기존의 설계를 뛰어넘는 자기식 레귤레이터(Magnetic Regulator)가 적용되었다. 이 특허 기술은 완전히 무소음으로 작동해 차임 소리와 경쟁하는 기계식 소음을 없애며,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인 템포를 구현한다.

멜로디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정밀함이 필요했다. 앞서 언급한 네 개의 음정과 마찬가지로, 각 음 사이의 간격 또한 과학적으로 측정되어야 했다. 블랑팡의 엔지니어들은 자체 연구소에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에게 기술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워치메이커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사부아-페어(Savoir-faire, 숙련된 장인정신)를 통해 소네리 메커니즘의 기어 톱니 형상을 1마이크론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처럼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0.1초 오차 이내의 완벽히 일정한 템포가 실현된다.

블랑팡의 사부아-페어는 정각에 울리는 멜로디 속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그랑 소네리가 정시에 시각만을 울리는 반면, 그랑 더블 소네리는 시간을 울린 후 네 개의 쿼터를 모두 연주하며 완전한 멜로디를 선사한다. 이는 단순한 차임을 넘어, 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블랑팡의 철학을 담고 있다.

블랑팡은 소리의 품질과 음량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마크.A.하이에크는 소네리의 울림을 감상하는 경험을 “훌륭한 와인을 음미하는 순간”에 비유한다.

“소네리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랑 와인을 음미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량의 문제가 아니라, 맑음과 공명감, 여운, 그리고 깊이의 문제입니다. 프레스티지 소네리의 울림을 음미하는 일은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경험이죠”

정교한 사운드를 완성하기 위해, 그랑 더블 소네리에는 수년간의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선택된 골드 사운딩 링(Gold sounding rings)이 적용되었다. 여러 합금 소재가 평가되었지만, 골드가 가장 섬세하고 풍부한 음향을 전달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완벽한 사운드를 향한 엄격한 실험과 의도된 결정의 결과다.

개발 과정에서는 음량의 전달력 또한 중요한 과제로 다뤄졌다. 무브먼트의 소리가 공기 중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도록, 블랑팡의 디자이너들은 베젤 내부에 골드 음향 멤브레인(Gold Acoustic Membrane)을 설계했다. 이 구조는 그랑 더블 소네리에 적용된 13개 특허 기술 중 하나로, 음향 전달을 극대화하는 독창적인 혁신을 보여준다.



에릭 싱어(Eric Singer)

열정적인 시계 수집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인 에릭 싱어는, 하드록 밴드 KISS의 오랜 멤버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인 드러머다. 그는 커리어 전반에 걸쳐 Black Sabbath, Alice Cooper, Lita Ford, Badlands, Brian May, Gary Moore, 그리고 자신의 밴드 ESP 와도 협업해왔다. 75장이 넘는 앨범과 11장의 EP에 참여한 그는, 록 음악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고 존경받는 드러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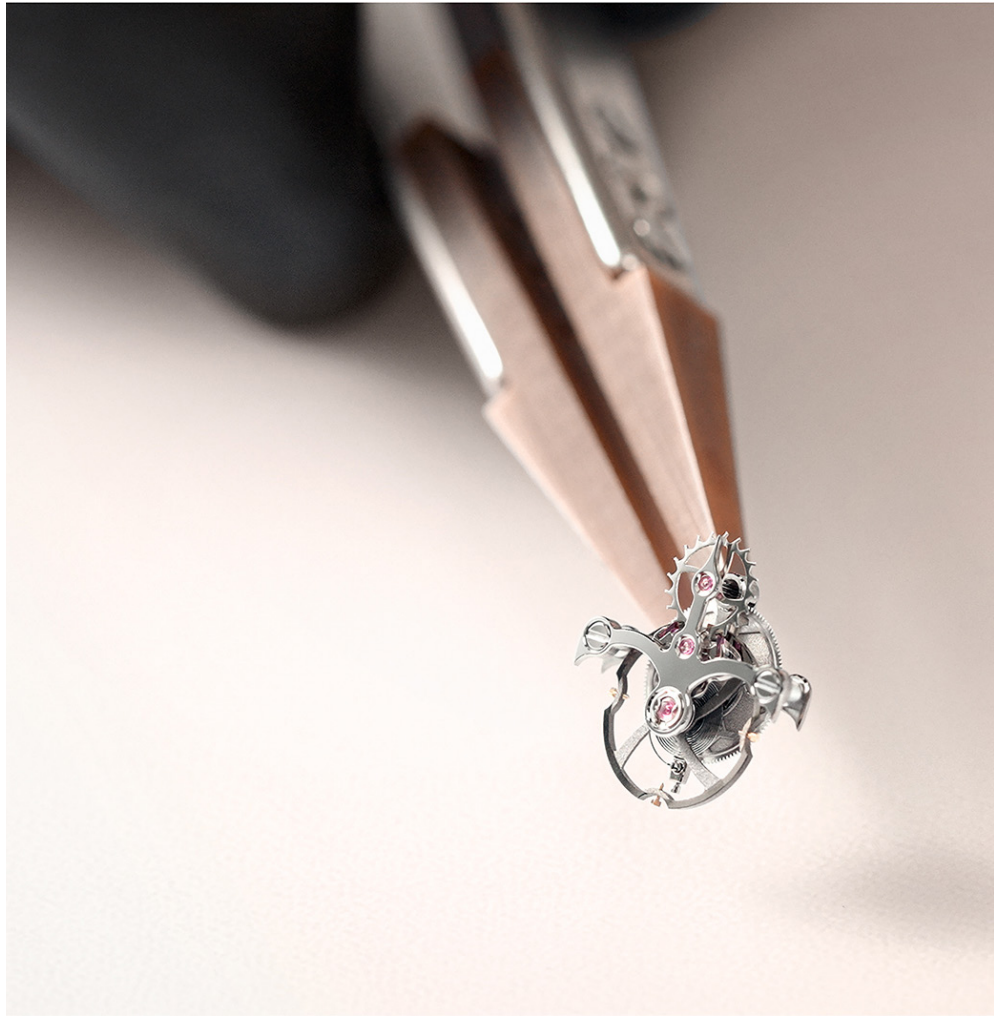
마크 A. 하이예크의 절친한 친구인 에릭 싱어는, 하이예크가 그랑 더블 소네리에 두 번째 멜로디를 더해 시계 제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을 때, 그 비전을 함께할 가장 자연스럽게 완벽한 선택이었다. 싱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오리지널 곡을 선보였으며, 이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창의적 경험이었다. 작곡 과정에서 그는 친구이자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키보드리스트 데릭 셰리니언(Derek Sherinian) 과 긴밀히 협업했으며, 셰리니언의 음악적 통찰과 탁월한 화성 감각은 최종 멜로디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무브먼트의 기술적 제약을 이 타임피스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정체성으로 승화시켰다.

“블랑팡 팀이 시계의 기술적 디테일을 제게 공유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내용 중 단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단지 네 개의 음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죠. 시계에서는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음악가에게는 엄청난 제약입니다. 그 한계를 음악으로 바꾸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도전이었고, 동시에 저와 데릭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싱어가 작곡한 멜로디는 ‘블랑팡’으로 명명되었다. 오너는 버튼을 한 번 누르는 것만으로 기분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혹은 블랑팡 멜로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멜로디 간 전환은 컬럼 휠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부드럽고 정제된 조작감을 보장한다.





뚜르비옹(The Tourbillon)

1989년 첫 선을 보인 블랑팡의 플라잉 뚜르비옹은 오늘날 메종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플라잉(Flying)'이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뚜르비옹이 상·하 브리지로 케이스를 지탱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블랑팡의 설계로 상단 브리지를 제거하고 하단 지지대만으로 밸런스 휠, 스프링, 이스케이프먼트를 완벽히 지탱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 혁신적인 구조는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용 플라잉 뚜르비옹으로 데뷔하며 그 정교한 움직임을 완전히 시각화한 설계로 찬사를 받았다.

이번 그랑 더블 소네리는 이 상징적인 메커니즘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진동수가 3 Hz에서 4 Hz로 높아졌으며, 밸런스 스프링은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자성에 대한 저항성과 함께 자성에 대한 저항성과 함께 더 가벼운 무게, 이상적인 기하 구조, 그리고 메인스프링 장력 변화에도 일정한 진폭을 유지하는 정밀성을 구현했다.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이번 작품은 뚜르비옹의 미학적 아름다움 또한 기념한다. 특히 케이스의 미러 폴리싱(Mirror Polishing) 마감은 빛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 메커니즘의 우아한 움직임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시선이 그 정교한 회전에 머물게 한다.

레트로그레이드 퍼페추얼 캘린더(The Retrograde Perpetual Calendar)

그랑 더블 소네리와 같은 차원의 타임피스에는 워치메이킹에서 가장 정교하고 실용적인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퍼페추얼 캘린더가 반드시 어울린다. 블랑팡은 이미 여러 형태의 퍼페추얼 캘린더를 선보여 왔지만, 이번 모델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필요했다. 이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의 세계에서 극히 드문 시도다. 대부분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는 캘린더 기능을 메인 플레이트 위에 별도의 모듈을 엮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하지만 블랑팡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을 따르지 않았다. 전용 캘린더 플레이트를 추가하면 소네리의 개방형 구조를 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블랑팡은 훨씬 복잡한 방식인 캘린더 메커니즘의 완전 통합형 설계를 선택했다. 이는 전례 없는 시도이자, 메종의 기술적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날짜 표시창은 무브먼트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되었으며, 요일·월·윤년 표시기능은 오른쪽의 두 개 서브 다이얼에 나뉘어 자리한다. 기존 블랑팡의 특허 기술인 언더 러그 코렉터는 케이스 러그 아래에 스프링 구조로 통합되어, 도구 없이 손끝으로만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모델에서는 골드 음향 멤브레인의 존재로 인해 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블랑팡은 코렉터와 복귀 스프링을 무브먼트 내부에 직접 통합하는, 유례없는 기술적 해결책을 구현했다. 이 독창적인 설계는 조작의 편의성과 기술적 우아함을 모두 충족시키며, 블랑팡의 진정한 워치메이킹 철학을 보여준다.





피니싱(Finishing)

정교한 피니싱은 하나의 예술이며, 블랑팡은 르 브라쉬에 위치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전용 공방에서 이 예술적 전통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술과 감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피니싱 문양과 기법을 재현하며, 금속 위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그 장인의 손길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기 위해, 블랑팡은 그랑 더블 소네리의 메인 플레이트와 브리지를 18K 골드로 제작했다. 이 소재는 시각적으로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그 부드럽고 섬세한 성질로 인해 다루기가 훨씬 까다롭다. 작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기에, 오직 완벽한 숙련과 인내만이 이를 완성할 수 있다. 골드는 무브먼트에 특유의 따뜻한 온기를 더하며, 황동이나 저먼 실버보다 한층 더 깊고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블랑팡은 언제나 그렇듯,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정교한 마감을 더하지 않는다. 오픈 다이얼이나 투명 케이스백을 통해 드러나는 면뿐 아니라, 워치메이커만이 조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숨겨진 내부 면까지도 동일한 수준의 정성을 들여 완성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메종이 추구하는 절대적 완벽주의의 표현이다.

르 브라쉬 공방에서 구현된 이러한 수공 피니싱의 정점은 무브먼트 곳곳에 새겨진 135개의 인사이드 앵글(Interior Angle)에서 드러난다. 이 날카롭고 또렷한 각도는 전동 공구로는 결코 구현할 수 없으며, 장인이 모서리를 손으로 세밀하게 조각한 뒤, 입자가 점점 고운 연마목으로 정제해가며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발레 드 주 자생 식물인 겐티안(Gentian) 나무 줄기로 금속의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며 마감을 완성한다.

시계를 보는 안목 있는 감정가들은 전동 공구로는 날카로운 인사이드 앵글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무브먼트를 자세히 살펴 그 각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섬세한 각도는 장인의 손으로 완성된 최고급 수공 피니싱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워치메이커(The watchmakers)

워치메이커에게 세상은 미세한 세계로 축소된다. 루페 너머로 보이는 극도로 작은 부품들, 조용한 작업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세상은 차단된 듯 고요하다. 그러나 그랑 더블 소네리를 탄생시킨 두 워치메이커, 로메인(Romain) 과 요안(Yoann) 에게는 이 묘사가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두 사람은 블랑팡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미닛 리피터 제작에 경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1,000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그랑 더블 소네리를 조립하는 일은 그들의 세계를 오히려 확장시켰다. 루페와 작업대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 이들은 서로 협업할 뿐 아니라 무브먼트 디자이너들과 함께 제작 방법과 섬세한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했다.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미닛 리피터의 어려움을 훨씬 뛰어넘는 과제였다. 미닛 리피터는 음색과 템포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그랑 소네리는 두 개의 멜로디가 완벽한 음정과 전혀 없는 템포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게다가 모든 부품이 하나의 메인 플레이트 위에 완전히 통합된 이 무브먼트의 구조는 기존의 그 어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보다 복잡했다. 그들에게는 참고할 공식도, 매뉴얼도, 선례도 없었다. 이 획기적인 시계를 완성하기 위한 길은 그들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조립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작업에 맞춰 전용 공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후 완성된 한 점의 시계를 만들기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각 워치메이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한 점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과정을 마친 뒤, 그들은 자신이 완성한 무브먼트 위에 부착될 골드 블랑팡 플라크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손으로 직접 각인한다.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수개월의 노고 끝에 느끼는 진정한 만족과 보상의 시간이다.



